



# 21世紀의 國立公園

金 樟 洙

2000년에는 世界人口가 63億 5千萬名이 되며 사람들의 貧富差異는 더 크게 될 것이다. 또한 開發發展上의 나라에서는 山林의 약 40%가 消滅하고 生物種의 약 20%는 絶滅할 것이다.

이상은 美國政府의 보고서 「2000年の 地球」에서 발표한 바이다. 果然 이와같이 될 것인가는 앞으로의 歲月에 우리들의 생활방식에 左右될 것이다.

이와같은 黑暗한 흐름을 막아서 밝은 21世紀를 맞이하도록 最善의 힘을 기우려야 한다. 이를 위하여 自然公園은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할 것인가? 어떠한 일이 可能할 것인가에 특히 考慮하여야 한다.

資源에 대한 甚한 경쟁시대에서 國立公園의 保護에 好意的인 사람들은 長期的 保全은 效果인 社會經濟的 開發에 依存하고 있음을 無視하지 않고 「公園은 그 自身으로 運營하여야 한다」는 議論을 提起하고 있다.

自然公園은 利益 評價에서 長期的 視点에서 必要하지만 不幸하게 人間이 決定하여 發展시킨 基本的 制度—經濟와 政治는 周知한바와 같이 短期的 視点인 것이다.

經濟理論은 體系의으로 將來를 考慮하지 않고 企業의 意志決定者는 一般的으로 短期結果로 左右된다. 또한 政治的 決定도 다음 選舉를 考慮하여 短期的인 것이다.

萬若 經濟와 政治의 指導의 立場에 있는 사람이 長期的 視点에서 實踐하지 않을 때 科學者와 環境保全論者는 長期的 視点을 가져야 할 責務를 가져야 한다. 長期的 視点에서 持續性을 考慮하지 않으면 開發은 有益한 結果를 가져오지 않는다.

國立公園과 自然保護地域에서 持續性을 考慮하는 社會에서는 이들이 重要的 役割을 하였다. 今後 21世紀에서는 이와같은 役割의 重要性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國立公園制度는 「地域制」를 採用하였다. 國土는 狹小하고 土地利用은 오랜 歷史를 가지고 土地所有形態가 複雜한 우리나라에서는 適合한 制度인 것이다. 그동안 自然保護制度에서 自然公園體系의 整備擴充으로 큰 役割을 하였다.

英國을 위시하여 많은 나라에서의 國立公園은 最

近 美國에서의 그린라인파크 構想 등도 地域制를 模倣한 制度이다.

地域制를 採用한 우리나라의 公園制度에서는 自然公園을 円滑히 管理·運營하기 위하여서는 強力한 行政施策을 展開하여 制度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施策에서 效率的인 것으로는 自然公園의 核心部에서는 될 수 있는限 專用地化를 하여야 한다. 集團施設地區를 中心으로 所管交換, 景觀保護와 公園專用地的 土地買收, 大面積所管換, 交付地方債로 民有地買上 民間寄付 등으로 될 수 있는限 專用地 擴大를 하여야 한다.

92 IFLA 한국총회에서 日本代表인 아키라 사토박사는 日本에서는 5개년계획의 目標로 1991-1995년 사이에 전국을 통털어 公園과 녹지의 총면적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총 5조엔(미화 400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중 1/2은 국가보조금의 대상이다. 1인당 도시 公園면적을 1989년 5.4㎡에서 1995년 7.1㎡로 확장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 日本은 이 면적을 2000년까지 10㎡로 증가시키려는 장기적 目標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 독일 조경가협회장 레인하드 그레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자연 요소들이 다른 과학자들과 협력하에서 설정되고 환경체계의 결과로 얻어진 지식이 도시의 개발과 도중에 응용된다면 이 도시 환경의 질은 큰 스케일에서조차도 대개 유지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에 사는 사람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모든 사람은 건강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요한 압력이 정치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가해져야 한다. 生態的으로 책임있는 思考가 단지 녹색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 집단에 퍼져야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창조 즉 責任있는 生態的 創造力을 결합하는 조경계획은 정치적 임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6월에 리우會議-UN環境開發會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長期的 視点에서 國家의 利益이 될 수 있는 環境的으로 適合한 政策을 수립하고, 自然公園과 保護地域을 擴大하고 設定하여 管理되어야 한다.